(III) 사신 하나님을 보는 은사

(고전12:8~11)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사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사신 하나님을 보는 은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보는 은사!
은사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능한 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달라서,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과 함께 은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의 입장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공생애 때 많은 말씀과 활동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시는데, 이 모든 말씀과 활동이 다 성령님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에게서 성령의 은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며, 그럼으로써 은사에 대한 이해가 그릇됨이 없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행하시는 많은 그 다양한 역사의 측면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은사라고 우리가 이름 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
이 세 가지 은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사라고 묶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할 때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 반복해서 확인 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였습니까? 내 마음심장을 꺼내서 이식하는 겁니다.
그 이식하는 대상이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내 마음심장을 이식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말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것이지만 눈으로 볼 때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구분해야 되는 일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사고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갖다 붙였냐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는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여건과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여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귀로 들리고 있는 이 상황보다 마음이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보다, 마음에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게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세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있을 때, 사울 왕이 생리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배변활동을 하는 그 순간은 천하장사라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등 뒤에 숨어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앞에 놓인 있는 칼을 들고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죄 없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원수입니다.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이 질문에 한 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선민나라의 군대의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며 꼼짝을 못하고, 모든 군인들이 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얼어 붙어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소년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피난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다윗 왕을 모욕하고 아주 정말 수치심을 느끼게끔 비난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저 개의 목을 따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왜 말렸는지 여러분이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시편 23편에서, 왜 원수의 목전에서 잘 차려진 잔칫상을 받은 것이라고 노래를 했겠습니까?
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은 왜입니까?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바꿀 때에, 특히 추월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차선을 바꿀 때에, 반드시 백미러로 먼저 옮기려는 차선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핸들을 돌려서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하고 뒤에서 오던 운전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클랙슨을 울리는 일이,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20년이 넘도록 운전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먼저 보고, 그리고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차선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보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왕도 보고 있는 가운데, 양치는 목동으로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 현장, 그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먼저 봤어요.
사울 왕이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마음이 뛰어들기 전에, 먼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을 먼저 본 거예요.
골리앗! 만군의 주 여호와를 먼저 본 것입니다.
원수들이 가득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근데 원수들이 둘러 싼 현장으로 마음이 뛰어들기 전에, 그래서 원수들이 둘러싸인 것을 마음이 느끼면서 벌벌 떨기 전에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방패요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봅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하는 것은, 그 풍랑이 있는 현장으로 마음이 뛰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는 현장으로 마음이 뛰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시는 것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품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사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하시되 지금 이 자리 이 형편에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여건

보다 먼저 보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 가 닿기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열악한 상황, 급박한 상황, 그 어떤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탄벽 안에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리더인 단체가 있다면 리더로서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은사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써, 그 단체가 처한 어떠한 위기상황과 급박한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리더의 마음이 들어가서 평강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 단체 전체가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절대 평강 안으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 전체가 대통령이 느끼는 그 평강 안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절대 평강 안에 들어갈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개 행동해야 되겠구나!' 마치 다윗이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듯이,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듯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깊은 잠에 빠지듯이, 평강 안에서 해야 될 일들과, 나타나야 될 사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참~ 사모할만한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끔 해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같이 묶은 이유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의 본질적인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함, 그 자체에 본질적인, 우선적인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은 나았다가도 다시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나 다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병들지 않고, 끝까지 쇠약해지지 않는다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은사와 연관되는 것은, 믿음의 은사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라도 그 현실적인 여건보다도 먼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사라고 그러면,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침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세분해서 얘기하면,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은, 그 옛날 2000년 전 주님의 공생애 시절과 사도바울이 살던 시절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식들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 불치병이 걸린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커다란 사랑으로 고치기를 원하고 있지만, 불치병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효용성 제로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늘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고, 더 이상 인간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성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명예는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벌은 아니지만 재력도 있고, 화려한 이력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는 필력, 이어령 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능력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가치를 다 갖고 계시던 그 이어령 씨께서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딸과 손녀가 불치병에 걸리게 됨으로써, 당신이 갖고 있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했던 그 모든 능력, 통찰력, 재력,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로 되는 것을 느끼시면서, 기독교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당신의 고백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일을 위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등등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인간의 무력감을 통감하는 순간에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은사였다고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능력 행하는 은사에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은, 소위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려지십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서에 의해서, 이 우주적인 질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들에 백합화가 피고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백합화가 피었다가 지고 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백합화 하나, 내일이면 시들어 죽을 풀 한 포기 안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입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요, 자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져 버려요.
뭐에 가려져 버립니까?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법칙과 질서가 커튼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면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는 이 자연법칙을 깨버리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때도 아닌데 열매가 안 열렸다고 무화과나무를 말 한 마디로 죽게 하십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자연법칙 상 아직도 몇 십 년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무화가 나무인데, 말씀 한 마디로 죽여 버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자연법칙을 다 찢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자연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자연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처럼 백합화 한 송이에서도 그 백합화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이 능력 행하는 은사가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못 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은사의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
사유화의 유혹이 가장~ 큰 은사들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병이 나있는 모든 교인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앞자리에 앉히고, 한 달이면 한 달, 40일이면 40일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에요.
그냥 무심코 하신 말씀이겠지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회 부흥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 한 방이 뭐냐?
'불치병에 걸려 있는 교인들을 공개적으로 낫게 하면 그 한 방에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고, 교회 문이 터져 나갈 것이다' 요대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외국에서도 그런 교회를 봤고,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를 봤어요.
아~주 큰 대형교회가 그런 걸 또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사의 사유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왜 이러실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표적과 기사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신대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뒤져봤더니,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거짓된 자들에게서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민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코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병 고친 자체를 보고 능력 행함 자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뒤에, 능력을 행하신 뒤에 그렇게 고구정녕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 절대로 내가 너를 병 고쳤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한 번 오해가 딱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보

려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고, 전부 병 고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막혔다고 보면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는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복음적 역사에 방해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조심을 하신 거고,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을 급한 마음으로 다 흩어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그래서 이러한 사유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하나님 맛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 출세함 이런 것이 맛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가 함부로 주어질 수도 없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 맛을 모른 채 그 은사를 통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이 현실적인 여건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보다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역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것을 절도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을, 기다림으로써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40일 기도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기다림으로써, 성령께서 이 은사도 저 은사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라고, 부작용 없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의 어떠한 급박함보다도,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느끼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가 본 그 좋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게 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셔서, 정말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